

13개국 퀀텀개발그룹,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 다져

- 외교부, 제6차 퀀텀개발그룹(QDG, Quantum Development Group) 회의 개최
- 퀀텀기술 보호·투자·표준화 분야 국제협력 및 산업계 참여 확대 방안 논의

외교부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총 13개국*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퀀텀개발그룹(Quantum Development Group, QDG) 회의를 개최한다. 외교부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신뢰할 수 있는 퀀텀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

* 한국,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일본, 호주, 덴마크, 핀란드, 캐나다, 스웨덴, 네덜란드, 스위스

퀀텀개발그룹은 2024년 7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, 퀀텀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영국·덴마크와 함께 투자 분야 공동 선도국으로 참여하고 있다.

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제5차 런던회의 이후 보호·투자·표준화 등 3개 분야에서 진행된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,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. 보호 분야에서는 연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, 투자 분야에서는 퀀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·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 표준화 분야에서는 퀀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협력

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.

특히, 외교부는 회의 2일차인 14일 산업협회, 퀀텀기술 개발 기업 및 수요 기업이 참여*하는 산업계 연계 행사(Partnering with Industry)를 개최할 예정이다. 행사는 우리 측의 퀀텀기술 활용사례 발표와 두 차례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.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, 퀀텀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QDG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(참여 기업·협회) 한국양자산업협회(KQIA), 메가존클라우드, LG전자, SDT, SKT, IBM Korea, Quandela Korea 등 국내기업·협회와 미국·핀란드·호주·덴마크의 기업·협회

김진아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하나로 양자 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며, 반도체·제조 역량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의 강점과 연결해 글로벌 퀀텀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“QDG 회원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,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협력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구혁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환영사에서 “양자기술이 산업화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, 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각국과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한국은 반도체·정밀제조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기술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, 이번 QDG와 이어지는 MDQ에서의 논의가 공동연구, 인재 교류, 공급망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, 퀀텀기술의 실증·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(외교부)	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	책임자	과 장	이수진 (02-2100-6913)
		담당자	사무관	나진엽 (02-2100-6969)
담당 부서 (과기정통부)	연구개발정책실 양자혁신기술개발과	책임자	과장	정성욱 (044-202-6870)
		담당자	사무관	윤태량 (044-202-6872)

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일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